Q

Check on neighbors to ensure they evacuated and let each other know about the situation

👫 재난포털

ON AIR *

'코로나19' 팬데믹

KBS NEWS

일본, '감염 우려' 자원봉사자 1만 명 줄사퇴…'파행 운영' 불 가피

입력 2021.06.03 (21:35) | 수정 2021.06.03 (22:05)

뉴스 9

표 가 🖃









다음기

"朴 탄핵 정당"·"바로 사면"… 승부처 TK의 민심은?

[앵커]

이번엔 도쿄를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황현택 특파원? 호주 대표팀 사례를 봤는데 이른바 거품 방역,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 겠네요.

[기자]

네, 이번 올림픽 때 일본을 찾게 될 해외 방문객, 선수 1만 5천 명을 포함해 모두 9만여 명입니 다.

당초 계획했던 18만 명에서 줄이고 줄여서 절반 정도로 압축한 건데요.

그럼에도 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제대로 된 '버블 방역'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가시지 않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무더기 사퇴는 걱정을 더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헤드라인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6%… 19대 보다 3.5%p↑

이재명 후보 자택, 지금 상황은?

윤석열 후보 자택, 지금 상황은?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환 …"항로 착오로 넘어와"





많이 본 뉴스

- 1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6%…19대 보다 3.5%p↑
- 2 이 "수천,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져" 윤 "투 표율 기대에 못미쳐"
- 3 "경북·강원 산불 났는데"···'제주들불축제' 어쩌나?
- 4 [특보] 이 시각 산불 상황과 바람 전망
- 5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 6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 환…"항로 착오로 넘어와"

전체 8만 명 가운데 "감염이 우려된다"면서 사퇴한 자원봉사자 벌써 1만 명이나 됩니다.

선수나 대회 관계자와 달리 이들에게는 백신 접종 기회가 없습니다.

[앵커]

방역은 그렇다치고, 이렇다면 원활한 대회 운영마저 장담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기자]

네, 오늘도 도쿄에서만 50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는 20일까지, 그러니까 개막 한 달여 전까지 긴급사태를 이미 두 차례나 연장했지만, 개최가 가능하다는 1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 방역 대책을 자문하는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미 시게루/코로나19 분과회 회장 : "지금 같은 대유행 상황에서 보통은 (올림픽을) 안 합니다. 대체 왜 개최하려는 건지,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앵커]

여론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거죠?

[기자]

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50일 후면, 제 뒤로 보이는 주 경기장에서 성화가 불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 관련 수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IOC,

여기에 올림픽을 장기 집권에 활용하려는 스가 내각의 정치적 계산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개막 50일을 맞아 오늘은 메달 수여식 예행연습도 열렸는데요.

조직위 안에선 "선수단 입국이 본격화하면 분위기가 금세 달아오를 것이다", "일본이 '금메달 30개'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내면 부정 여론은 단숨에 반전된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한찬의



KBS NEWS

292 대통령/171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대선 관련한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KBS 대선 특집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황현택기자 news1@kbs.co.kr 황현택 기자의 기사 모음 ▶

뉴스 9 전체보기

0 0 4



'코로나19' 팬데믹

더보기



개그맨 신동엽 코로나19 확 진…방송 줄줄이 타격



제주서 하루 4천 명 가까이 확 경기 9만 6684명 최다 확 진…보건소 대기 행렬



진…하루 10만 명대 발생 코 다…누적 500만 명 넘어서 앞



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

오늘의 HOT클릭!

























절반만 찍히거나 겹쳐 찍었어 도…선관위 "모두 유효표"

[20대 대선 인증샷] 내 손으로 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 뽑는 대통령 "투표했어요~"

다…누적 500만 명 넘어서

"경북·강원 산불 났는 데"…'제주들불축제' 어쩌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울진ㆍ삼척 산불 엿새째…전체 진화율 70%

[영상] "특정 후보 연상시킨다?" 투표 도장까지 바꾼 사연 피치, 러시아 신용등급 C로 강등…"국가부도 임박" 중국 매체, 한국 대선 각별한 관심···"누가 이기든 한중관계··· '정확하고 재미있게'···미리 보는 KBS 개표방송

지역뉴스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대구 안동 포항 광주 목포 순천 전주 대전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원주 제주

뉴스 아카이브

KBS소개 ▲ 시청자권익센터 사이버 감사실 광고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

KBS N 채널 ▲ KBS WORLD 🔺

KBS /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여의도동) / 대표전화 02-781-1000 / 기사배열 책임자,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정 KBS뉴스 인터넷 서비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 시청자상담실 02-781-1000 / 등록번호 서울 자00297 (2010년 6월 23일)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